

◆교회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복음화
세계선교
지역사회 봉사

주간 충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누가복음 14:23)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에베소서 4:13)

발행처: 대한예수교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전화 552-8200

THE WEEKLY CHOONG - HYUN

발행인: 신성중 편집인: 우기전 편집국장: 조선근

오늘은 '장애인주일', 사랑과 관심을

주 안에서 똑같다는 인식아래 함께할 수 있어야
오늘 찬양예배시에는 에바다부의 수화찬양도

4월 24일은 전국교회가 '장애인주일'로 지키는 날이다. 장애인주일은 동일하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일반인으로부터 소외당하고 특별취급 당하는 장애인들을 이해하고 그들과 서로 교류하며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바르게 인식하는 기회로 삼고자 1989년 범교단적으로 4월 넷째 주일을 장애인주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교회가 장애인주일을 지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장애인주일이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약 100-400만의 장애인이 있는데 교통사고, 산업재해, 공해, 성인병 등으로 인하여 후천적 장애인이 계속 증가되고 있다. 이는 전체 인구의 약 25%가 장애인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고 있는 것으로 되어있다.

장애인 중 취학연령에 있는 특수교육 대상 중 75%가 교육의 기회조차 받지 못하고 있으며 조기교육을 받는 장애유이는 1-2% 정도이다. 또한 재활의료기관(200여개)이나 복지시설(이용시설 10여개, 수용시설 120여개)로 크게 부족하며 주민들의 그릇된 장애인관과 편의시설도 장애인들의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주고 있다. 정부의 올해 장애인 복지예산은 전체예산의 0.1%에도 못미치는 실정이며 이러한 장애인 실

태의 심각성을 생각해 볼 때 정부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으로 감당해야 할 것이다.

우리 교회는 오래 전에 장애인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충현장애조기아동교육원을

은 교사들이 교통수단, 식사협력, 교육보조를 하고 있다.

장애인 한명당 한명의 자원봉사교사들이 예수님의 사랑정신으로 천사처럼 돌보고 있으며 비록 육신의 장애로 어려움은 있지만 정신적으로는 너무나 건강한 그들의 순수한 마음에 오히려 정상인들이 고개를 숙일 때가 많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게 된다.

떠들썩한 행사 위주로 장애인의 날을 기념하고 있는 오늘의 세태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장애인주일'이 제정된 의미를 잘 살피고 그동안 가지지 못했던 사랑과 관심을 이런 주일을 통해서 다시 새롭게 하고 그들을 정상인과 똑같다는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며 그늘지고 연약한 자에게 먼저 찾아가신 예수님의 사랑정신을 본받아 조용하게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필요한 것들을 나누며 '함께 하는 일'들이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다.

한편 오늘 저녁 찬양예배시에는 에바다부가 준비한 수화찬양의 시간을 갖게 된다.



▲ 에바다부의 수화찬양 모습

설립하고 주간중에 특수교사를 통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청각장애인을 위한 교회학교 에바다부, 지체·정신장애아를 위한 교회학교 사랑부를 두고 소정의 교회학교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농아자를 위하여 매주일 III부 예배를 비롯한 각종 집회에도 모든 순서와 내용을 동시통역하여 말씀을 듣도록 하고 있으며, 자원봉사로 나선 많

오늘 IV부 예배후 교구별로 새가족 환영회

오늘 IV부 예배후 각 교구별로 새가족 환영회의 시간을 갖는다. 2월 20일부터 4월 10일 사이에 등록한 새가족들을 대상으로 모이는데 가능한 많은 교구식구들이 참석하여 따뜻하게 환영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이다.

실업인선교회 기도회

실업인선교회에서는 4월 26일 충현기도원에서 기도회를 갖는다. 지난 3월, 당회장 신성중 목사를 모시고 조찬기도회를 가진 바 있다.

이번에는 '우리의 부족함을 기도로 채우자'라는 표어로 충현기도원 지도인 유창무 목사를 강사로, 4월 26일 충현기도원에서 오후 8시에 기도회로 모인다. 이 날 모임은 오후 7시부터 8시까지 교회에서 식사를 하고 충현기도원으로 출발할 예정인데 회원 부부 모두가 참여하여도 된다.

실업인선교회는 충현교회 교우로 자영업업을 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문의는 구내전화 205번이다.

교회학교 사랑부 장애인 기관 탐방

교회학교 사랑부는 지난 4월 19일(화) 교사 33명이 장애인에 관한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서울시립남부장애인복지관을 방문, 견학했다.

그곳에서 교사들은 비디오를 통해 장애인 교육 및 시설에 관한 내용을 보고, 그곳 관계자들과 대화의 시간을 가지며 장애인 복지, 교육, 관리에 관한 이해의 폭을 넓혔다. 한편 가지고간 CD Player를 선물로 기증했다.

금주의 정지기 훈련 및 연속기도

청지기훈련 - 4월 28,29일 양일간: 10, 11, 12교구
24시간 연속기도회 - 12교구

94년도 청지기훈련이 시작됐다. 금주의 훈련 해당자는 28일(목) 오후 6시 30분까지 교회에 집합하여 저녁식사를 하고 명찰 및 훈련복을 지급받고 인원점검 및 오리엔테이션을 한 후 오후 7시 30분에 기도원행 버스를 타게 된다.

충현기도원에 도착하여 오후 9시부터 저녁집회가 시작되어 다음날(금요일) 오후 4시에 수료식을 하고 4시 30분에 기도원을 출발하여 모든 일정을 마치게 된다.

준비물은 성경, 찬송가, 필기도구, 세면도구, 복장은 충현훈련복에 운동화를 신어야 한다. 점수는 교육국에 비치한 신청서 양식을 사용하면 된다.

한편 지난 2월23일에 시작한 94년 직분자 24시간 연속기도회는 금주에는 12교구가 24일 오전 12시부터 5월 3일(화)까지이다.



보내 주세요! 신학기가 끝나고 학교와 학급에 적응하면서 교회학교는 각 부서의 부흥을 위한 전도운동이 활발하다. 전도집회, 학교전도, 배가운동 등 자체 행사로 바쁜 주간들을 보내고 있다. 지난 4월 첫주부터 교회학교 초등1부는 매주일 오전 10시 30분 - 11시까지 본당 앞 계단에서 찬양과 율동을 하며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끌고 있다. '국민학교 1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은 오전 9시 초등1부 예배에 꼭 보내 주십시오'라는 뜻으로.

1. 모든 피조물은 다 사명을 가지고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종류대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가운데 사명이 없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만물을 만들 때에 하나하나 전부 사명을 부여하셨습니다. 나무도, 꽃도, 하늘의 구름도, 강물도 사명이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뒹굴며 발에 채이는 돌 하나도 우연히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대로의 의미가 있고 사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에 커다란 돌이 하나 있습니다. 이 돌은 유명한 조각품을 만들 수 있는 재료가 됩니다.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 같은 조각품, 얼마나 훌륭하고 유명합니까? 그러나 그 작품의 돌들은 처음부터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돌을 조각가가 아름답게 조각하여 세계적인 작품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돌들도 다 같은 돌은 아닙니다. 그것보다 못한 돌은 망치

로 깨서 집을 만듭니다. 이 예배당도 돌로 되어 있는데 그냥 산에 아무렇게나 뒹굴고 있던 무가치한 돌이었지만 이것을 다듬어서 성전을 만들고 나니 얼마나 좋은 돌이 되었습니까? 또 어떤 돌은 그야말로 크기도 작고 보잘것 없어서 조각품을 만들 수도, 집을 만들 수도, 담을 쌓는데 사용할 수도 없는 돌이 있습니다. 그런 돌은 부수어서 아스팔트를 포장할 때에 사용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심지어 우리 발에 채이는 돌도 그것을 어떻게 사용했는가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지고, 그 돌 하나에도 사명이 있다면,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우리 인간들이겠습니까? 그 사람이 장애인이면 예비장애인이면 우리 모두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인생의 참 행복과 가치가 있습니다.

2. 장애를 주심은 장애를 통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입니다

본문 요한복음 9장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길 가실 때에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뉘 죄로 인함이오니이까 자기오니이까 그 부모오니이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3절)고 했습니다. 즉 이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가 장애인으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계속해서 보면 예수님께서 그를 깨끗이 고쳐주셨습니다. 병을 고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냄으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장애인으로 태어난 이유요 목적입니다.

우리가 장애인이라 할 때에는 보통 신체적인 장애인을 떠올리지만, 사실 가장 무서운 장애인은 영적인 장애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했건만 하나님을 알지도 믿지도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에 영접하지도 못하고, 천국이 있는데도 보지 못하는 그 사람이야말로 가장 무서운 중증 장애인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는 장애인 아닌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든 그 형상이 깨어지고 이지러지고 그래서 정신적으로든 신체적으로든 영적으로든 우리 인간은 사실 다 장애인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 장애인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고 했습니다. 이것은 먹고 마시는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하니까 굉장한 일을 해야만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부모의 생활비, 용돈, 선물은 많이 갖다 드리지만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몸이 불편해서 아무것도 해주지 못해도 늘 부모님 곁에 있으면서 부모의 마

음을 기쁘게 해주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누가 진정한 효자인지?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그가 효자요 효녀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은 네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가졌느냐, 정말 네가 하나님을 바로 믿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무슨 활동이라고 한다면 몸이 불편하니까 아무래도 불리한 것이 많겠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건생활을 하는 것은 몸이

충현장단



장애인의 사명

(요 9:1-12)



신 성 중

<목사·당회장>

불편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3. 장애를 극복하고 세계적인 인물이 된 장애인들

장애인들 가운데 위대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비장애인들보다 세계적으로 더 이름을 날린 훌륭한 사람이 참으로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아마비로 고통을 겪으시는 장애인들이 많으신데 소아마비 가운데 영국의 시인이요 소설가인 스코트라고 하는 세계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비록 움직이지 못하지만 생각을 통해 유명한 시를 많이 썼고 소설도 많이 썼습니다. 또 355가지의 특허를 가지고 있는 스웨덴의 발명가 노벨은 심장병을 앓았습니다. 요즘은 폐결핵을 별것 아닌 것으로 생각지만 옛날에는 이 폐결핵이 굉장히 심각한 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폐결핵에 걸림으로 인해서 오히려 위대하게 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국의 극작가로 최초의 희곡을 쓴 오늘이 그랬고, [킬박사와 하이드]라고 하는 아주 재미있는 소설을 쓴 영국의 소설가 스티븐슨도 폐결핵으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한국에서 가장 위대한 목사 세 사람을 꼽는다고 한다면 한경직 목사, 김창익 목사, 조봉암 목사를 손꼽을 텐데 세 사람 다 폐결핵 환자였습니다. 또 시각 장애인 가운데에도 위대한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8000개의 찬송시를 쓴 크로스비 여사이고 한 사람은 [실낙원]을

쓴 존 밀튼입니다. 유명한 역사가요 비평가인 칼라일도 위장병으로 인해서 일평생 고통을 했고, 차이코프스키의 '비창'이라고 하는 곡도 자살할 지경의 고통속에서 탄생된 걸작들입니다. 베에토벤, 그도 청각장애자였습니다. 또한 병약한 몸으로 고통을 당하던 샬럿 엘리엇 여사는 150편의 찬송시를 작사했는데 339장이 바로 이분이 작사한 찬송입니다. 이 엘리엇 여사는 너무나도 병약한 몸으로 인해서 고통을 많이 당한 그런 장애인이었습니다.

고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힘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신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의지하게 될 때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꼭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시 46:1-3). 이 시간에 우리의 힘이 되신 하나님을 꼭 붙드시고, 그 하나님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고

통과 괴로움과 좌절과 실망을 내어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십자가, 여러분의 고통을 대신 저주시며 여러분을 위로해주시고 여러분에게 새 힘을

주시길 줄로 믿습니다.

4. 장애인들이 해야 할 사명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적어도 우리는 영적장애에서만은 벗어나야 합니다. 정신적인, 신체적인 장애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 할지라도 영적 장애에서만은 벗어나야 합니다. 그 방법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어떤 뜻과 섭리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서 마음으로 행동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금도 사랑하시며 영원토록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 내 삶에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번째는 여러분들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해야 합니다. 세상에는 여러분보다 더 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중에는 부모나 다른 분들에게 도움을 받고 있는 분들이 많은 줄 압니다만 여러분들보다 더 심한 장애인들은 바로 여러분들의 도움을 지금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신앙적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신앙적으로 무엇을 원하고 계신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심지어 먹고 마시는 그런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고 한다면 내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건강한 성도님들은 건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건강을 주신 것은 그 건강으로 주님의 일을 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사명이 무엇인가,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감사함으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부의 천국방안은?

1. 미안해요(실수했을 때)
2. 괜찮아요(상대방이 실수했을 때)
3. 좋아요(상대방의 제안에 대해)
4. 잘했어요(상대방의 결정, 제의에 대해)
5. 훌륭해요(상대방이 한 일에 대해)
6. 고마워요(상대방의 작은 성의에 대해서도)
7. 사랑해요(종말)

글 / 신 성 중 목사

정지기 훈련을 마치고

앞으로는 60배, 100배
더 열심히 감당하기로

양 병 진

(집사, 제5교구 베드로전도회 회장)



1.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자.
2.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자.
3. 말씀과 기도로 힘써 무장하자.

라는 목표 아래 1박 2일로 훈련을 받았다. 매 주일 교구 모임에서나 얼굴을 대할뿐 별다른 교제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 좀더 가까이서 교제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삶의 일부만 만이라도 같이 할 수 있다는 기대 속에서 참석하였다.

첫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부터 나는 깊은 자성의 시간을 가지며, 그동안 내가 영적으로 얼마나 성장이 되었는가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 놓고 답을 구해보았지만 나의 신앙의 정도는 중년도, 청년도, 소년도 아닌 아이 정도 밖에는 안되는 성싶었다. 참으로 안타까웠다.

나를 통해 빛이 나고 소망을 갖게 된 사람들이 있을까?

나를 필요로 하는 형제 자매들을 몇이나 될까?

또 하늘에 소망을 갖게 된 자는.....

계속되는 반문과 자책 속에서 속소로 돌아와서도 나는 제대로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이른 새벽 집회에서 교회 성장에 관한 강의를 들었다. 그때 다시 교회가

성장하는 일에 관심을 얼마나 기울여 왔는지, 혹 방해꾼이나 구경꾼은 아니었는지, 총현교회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얼마나 관심을 갖고 기도를 했었는지, 모든 일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임했는지를 생각해 보고 앞으로는 60배, 100배 더 열심히 살아서 교회의 집사, 교사, 전도회 회장으로서 부끄럼 없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자고 다짐하였다.

총현교회 금년도 표어 성구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데 까지 이르리니"(엡 4:13)처럼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교회에서나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예수님 닮은 하나님의 아들다운 아들이 되어야겠다.

우리집 가훈은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이다. 모든 마음과 삶이 예수님을 닮아 나그네 인생 행로가 다 되어 주님 오라하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 것이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물맷돌

바울을 만든 사람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난 사울이, 바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러나 이 사건 뒤에 숨어 있는 두 사람의 일을 잊어 버릴 수가 없다.

..아나니아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완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행 9:17)

그 당시 박해자 사울의 시퍼런 서슬 앞에서 "용기"를 가졌던 아나니아의 덕분으로 그의 신앙생활이 시작될 수 있었다.

..바나바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들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와 같이 애매하게 주를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는 것을 말하니라'(행 9:26-27)

많은 사람들의 편견 앞에서, 영혼에 대한 참 "사랑"을 가졌던 바나바의 덕분으로 그의 전교생활이 시작될 수 있었다.

"용기와 사랑" - 이것이 사람을 만들었던 것이다.

♣ 징검다리 ♣

목사님 손은 하나님 손(?)

이 조 웅

(목사, 제1교구, 제1교육위원회 지도)



저는 성도들의 가정을 심방할 때마다 여러 가지의 선물을 받고 돌아오곤 합니다. 때로는 기쁨과 감사라는 선물을, 때로는 흐뭇한 은혜의 선물을, 때로는 위안과 소망의 선물을 가슴에 안고 돌아옵니다. 그러나 병들고 어려운 가정을 심방한 다음에는 안타깝고 답답한 마음을 갖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돌아오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소개하고자 하는 가정은 예외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병들고 답답한 가정 같았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지긋하신 여자 집사님이 지나친 피곤으로 인해 눈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병원으로 심방을 갔습니다. 누워서 신음을 하고 계시던 집사님이 제가 온 줄을 알고 일어나 앉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제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흘립니다. "목사님! 인생 사는 것이 힘듭니다."

저는 잠시 목상을 한 후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치고 힘들어 눈물을 흘리는 집사님을 붙들어 주옵소서, 그리고 그의 믿음을 보시고 몸의 건강을 주시고 환경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기도를 마치고 몇 마디의 위로의 말을 했습니다. 집사님은 눈물을 닦고 환하게 웃으시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를 연발하셨습니다. 흐뭇한 환자심방이었습니다.

며칠 전에 대심방하던 중에 바로 그 여집사님의 가정을 심방하게 되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고 집에 들어서니 기다렸다는 듯이 나이 드신 집사님 부부가 나오십니다. 여자 집사님은 "목사님!"하면서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저는 이 여자 집사님이 제 손을 잡는 이유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도 집사님의 손을 고요 잡아드렸습니다. 심방을 끝내고 일어나려고 하는데 여자 집사님이 말합니다. "목사님! 손 한

번 더 잡아도 되겠지요. 목사님 손을 만지면 하나님 손을 만지는 것 같습니다. 저에게는 목사님 손이 하나님 손입니다." 저는 웃으면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예수님은 언제나 못자국난 손으로 집사님의 손을 잡고 계십니다"라고 말씀 드리며 다시 손을 잡아 드렸습니다. 어린 아이처럼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 얼굴에서 저는 천사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 집을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집사님과 그 가정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며 소망과 위안이라는 선물을 안고 돌아왔습니다.

저는 이 여집사님을 통해서 마태복음 9장에 나오는 열두해 혈루증을 앓는 여자의 믿음을 보았습니다. 열두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는 예수님의 뒤로 와서 겹옷을 손으로 만졌습니다. 여자 마음에 겹옷만 만지면 나을 줄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여인은 믿음대로 고침을 받은 것입니다(마 9:22).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가라사대 딸아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시로 구원을 받으니라"

사람의 손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범죄하는 손, 저주하는 손, 구제하는 손, 병을 고치는 손, 축복하는 손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손들 중에서 범죄하는 손은 하나님의 심판의 손에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쭈장이는 거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눅 3:17). 그러나 믿음의 손,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는 손은 구원을 얻으며 축복을 받습니다. "다만 예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마 14:36).

"하나님 아버지! 우리 총현의 모든 성도들에게 믿음의 손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단기선교훈련생 모집

신청마감은 5월 15일(주일)까지 선착순으로 마감

선교위원회는 지난해에 이어 금년은 태국으로 단기선교훈련을 하기로 하고 훈련생을 모집하고 있다. 모집인원은 42명으로 대원 30명, 의료진료 6명, 이용원 3명, 본부요원 3명이다. 경비는 1인당 80만원으로 교회에서 개인당 30만원씩 보조해줄 계획이다.

신청방법은 모집안내서의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금 10만원과 함께 선교위원회(선교관 406호)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마감은 5월 15일(주일) 오후 5시까지 선착순으로 마감한다.

신청자는 5월 12일(목), 오후 7시에 베다니홀에서 면접 및 오리엔테이션을 한다. 확정되면 11주간 동안(매주 목요일 저녁) 예비훈련을 받고 파송된다. 자세한 문의는 선교위원회(선교관 406호,

전화 552-8200, 교환 357번)로 하면 된다.

국제화시대에 충현교회에 주어진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동시에 이를 통한 선교 참여자의 확대를 전 교회적으로 선교부흥의 계기가 되도록 선교위원회에서는 등록교인 중 선교에 관심있는 자 및 선교헌신자, 충현교회 청년·대학부 회원 및 선교위원을 대상으로 단기선교 훈련생을 모집하고 있다.

대상지역은 태국 북쪽과 동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미얀마와 라오스, 캄보디아와 국경을 이루고 있는 차양마이와 우돈 타이 지역으로 최근 한국 선교사들이 들어가고 있는 곳이다. 이 지역은 태국에서도 소외지역으로 현지 목회자들도 가기를 꺼려하는 지역이다.

수화교실 주일반 개설

농아인을 위한 한글교육과 기초성경공부 과정도

에바다부는 오는 5월 1일부터 7월말까지 매주일 오후 3시 - 4시 30분까지 교육관 109호, 305호, 308호실에서 수화교실을 개설한다.

이번에 개설하는 반도 초급, 중급, 고급 반으로 관심있는 사람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

고 있다. 수화교실은 매년 한 두 차례 실시하게 되는데 타교회 교인들도 많이 참석하고 있다. 교실은 초급반부터 배울 수 있어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다.

한편 에바다부는 5월 1일 주일부터 매주 일 오후 3시 - 4시까지 농아인을 위한 한글교육과 기초성경공부 과정을 신설하여 실시한다. 주위에 농아인이 있으면 권하여 참석케 하여도 된다. 기타문의는 에바다부실(교육관 109호, ☎ 552-8200(교 416))로 하면 된다.

다함께
기도합시다

◆ 금주에 기도할 제목 ◆

1. 원로목사님과 당회장 목사님의 사역과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 김창인 목사님 : 25일(월) 전체 교역자 수련회 특강.
29일(금) 민족복음화 운동본부 주최 철야집회 인도 (백봉산 기도원)
- 신성중 목사님 : 25일(월) 목회자 세미나 강의, 한양 기독교산업인회 전도초청 주강사.
26일(화) 전체 교역자 수련회 특강
2. 충현의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살게 하시사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3. 주간성경공부와 청지기훈련을 통해서 성도들의 믿음이 더욱 성숙되게 하옵소서.
4.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사 죄악된 세상을 변화시키게 하옵소서.
5. 사회 각 계층에 참된 개혁의 바람이 불게 하시사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며 부정과 불의가 물러가게 하옵소서.

동산 이장 및 매장에 따른 경비 보완 실시

동산관리부는 동산묘지 이장 및 매장의 각 경우에 따른 경비를 보완하여 발표하였다. 보완된 내역은 다음과 같다.

1. 제1동산에서 제2동산으로 묘1기를 옮길 때 : 800,000원(현행)
2. 제1동산에서 제2동산으로 묘2기를 합장할 때 : 1,000,000원(보완)
3. 상을 당한 가정이 제2동산에 매장하

면서 동시에 제1동산의 묘1기를 합장할 때 : 2,000,000원(보완)

4. 제1동산에서 제2동산으로 이장할 때 : 이장용품, 작업비 기타 행정적 처리는 상조회에서 주관함.

5. 운구차량은 법에 규정된 차량(영구차, 엠브런스)을 이용함.

기타 자세한 문의는 선교관 405호, 전화 552-7750 또는 552-8200(교환 355)으로 하면 된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안에서 목사님 그간 평안하십니까? 충현의 성도님들도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에는 17일부터 29일까지 한국 부산 D.T.S(예수제자훈련학교) 팀이九州地方으로 전도여행차 왔는데 요즘 Y.W.A.M의 사역인 TORCH RUN이 진행되고 있어 그 일에 동참하게 되어 그들의 통역일로 다녀왔습니다.

九州南端인 가코시마부터 구마모토까지 매일 4-50Km 씩 달리는 한국학생들의 모습에서 일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더 강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군데 교회에서 머무르면서 찬양과 간증 그리고 부족한 제가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아무 쓸모없는 저이지만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기에 제 모습 그대로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심을 알았습니다. 또한 저의 모든 과거 역시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또한 한국 젊은이들의 믿음의 열기로 재충전 받는 기회도 되었습니다.

한국소식은 교회에서 계속 보내주시는 충현의 소식지를 통해 감사히 보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곳은 지난주까지 '벚꽃제'를 지내는 정도로 따뜻합니다. 다만 너무 가물어서 절수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저의 일을 소개해 드리다면 주일에는 예배후 새신자 2명과 말씀 공부를 하고 월요일에는 한국인 선교사 일본어 공부지도, 밤에는 Y.W.A.M이 매주 갖고 있는 월요찬양과 간증모임이 있고 화요일에는 교회집사 두명과 성경공부, 저녁에는 가정집회(구역모임 같은 것)에 참석하며 수요일에는 기도모임이 있는데 월 2회 반월야(새벽 2시까지)에 참석합니다.

● 선교지에서 온 소식 ●

저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만큼
주님을 많이 닮아간다고
믿고 있습니다.

목요일에는 일본어 지도와 그리고 밤에는 가정집회에 나가며 화요일과 목요일 가정집회 때는 목사님이 인도하시고 설교하시는데 신학교 및 평신도 성서학교에 강의를 나가시는 고도 목사님과 제가 격주로 대신 인도하게 됩니다.

금요일에는 새신자와 말씀 공부를 하고 월 14회씩 18:00-22:00까지 교회사역을 하는 스텝만의 모임이 있습니다. 위에 적은 시간 틈에 제 자신의 시간을 쪼개어 기도, 성경읽기, 묵상, 카운셀링 공부, 기타서적을 읽고 있으며 가르치기 위한 준비 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시간들이 너무나 소중하고 은혜

가운데 지나가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언어로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감사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제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라고 무지한 사람들과 속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가르치는 일을 함에는 정말 다른 아무것도 귀하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저 이 일을 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무한한 영광이 있기를 빌 뿐입니다.

이곳 사람들의 영적 무지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제 안에 더 많이 더 정확히 부어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조상

대대로 속임의 영에게 묶여있는 오키나와 사람들이 주의 이름과 보혈의 능력으로 하루속히 풀려나도록 거듭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돌아오는 7월에는 1차 휴가를 얻어 귀국할까 합니다. 이 계획을 교회에서 얘기했더니 목사님 이하 몇분들이 여름에 한국에 전학차 가겠다고 결정했습니다.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때는 우리 충현교회도 방문할 예정이오니 잘 부탁드립니다. 주일예배 참석은 물론 성도님들과의 교제도 가졌으면 합니다. 주 안에서 성장하고 있는 모교회를 저도 확인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믿고 있습니다만 사랑하는 여러 성도님들의 성장한 모습이 정말 궁금합니다. 기도해 주시길 믿습니다만 때로는 음성이나 필적도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이곳 성서장로 영광교회를 위해서도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금년에는 55명 성도가 모일 수 있도록 55작전을 펴고 있습니다. 또 10명의 수세자가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곳 성도들은 한국의 열기를 몹시 부러워하고 있죠. 성도 수가 적은 만큼 발은 컵니다. 많은 일꾼이 필요한 곳이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만큼 주님을 많이 닮아간다고 믿고 있습니다. 충현의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목마름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럼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빌며.

오키나와에서 전정우 올림
(전 21교구 구역장 집사)

선교지에서 온 소식

